

건강 칼럼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위궤양·위암 대처해야

위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힐 만큼 두려운 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위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이다.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암 5년 생존률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률은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초기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인데, 일반적인 위장 질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야 위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위암 초기증상으로는 궤양을 동반한 조기위암의 경우 속쓰림 증상이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소화기 증상은 비궤양성 소화불량으로 조기 위암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체중 감소와 복통, 오심과 구토, 식욕 감퇴, 연하 곤란, 위장관 출혈 증상 등이 있다. 또한 위암 진행 속도에 따라 유문부 폐쇄에 의



박찬익
구로세브란스병원 종합검진센터 원장

한 구토나 출혈, 토혈, 흑변, 연하 곤란 증상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복부에 종괴가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다.

위암 치료 방법으로는 조기위암이면서 크기가 작고 분화도가 좋은 위암 초기증상인 경우라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만약 내시경 치료 기준을 넘은 조기 위암과 2~3기의 진행성 위암일 경우 수술 치료로 주변 림프절을 제거해야 한다. 위암이 더욱 진행되어 위 주변 림프절이 아니라 먼 곳의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거나, 복막 파종, 간과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면 국소적 치

료 방법인 수술 치료는 의미가 없다.

이 경우에는 운몸에 퍼진 암세포들에게 모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암 진행속도를 낮출 수 있는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된다. 위암 수술 후 2기 또는 3기로 관전 받았다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보조적항암요법이라 한다.

위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 건강 검진을 통해 위암 초기증상일 때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까지 위암 치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치료 요법은 조기 발견에 이은 수술적 치료일 뿐이다. 다행히 위암 초기증상을 알아차려 조기 발견을 한다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내시경을 식도로 삽입하여 위, 십이지장까지 관찰하는 검사 방법이다. 위암뿐 아니라 위염, 위선종, 위출혈, 위궤양, 식도염,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내시경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환자라면 수면내시경을 통해 편안하고 부담 없는 검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위암 조기 발견 및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젊은 층 사망 원인 중 위암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화기 질환은 특히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수월하므로 위내시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면 위내시경 등을 통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바란다.

사설

새마을금고 현주소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영 행태를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요즘 전국 곳곳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등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해 가족 금고처럼 운영되고 있다.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는 1,200개 가 넘는 전국 마을금고의 건전성 검사 등을 하는 요직이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거리가 멀다. 친인척이 금고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채용 시스템 탓이다.

공채전형과 달리 일반채용은 개별 금고가 알아서 선발한다.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사례도 많다. 전국의 많은 금고에서 임원의 친인척을 계

약·경력적으로 뽑은 뒤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

혈연에 기댄 수 없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새마을금고가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청년층이 중시하는 높은 급여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예적금과 공채(보험) 등 취급 상품도 많지 않다.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인 중·대형 금고의 정규직 신입 사원 초봉은 5,560만 원(2023년 기준)이다.

3급(부장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820만 원에 달한다. 포상비와 시간외수당, 업적 달성비 등이 따로 있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전국의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뒤 비위 소지가 있으면 수사의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쟁점

이번 선거를 놓고 병립형과 연동형이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국회의원 총의석수는 300석이다.

이중에서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 소선거제로 뽑은 의석수는 233석, 정당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로 뽑는 의석은 47석이다. 병립형은 한자어로 나란히 병(並), 설 립(立)으로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뜻이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치르는 방식이다.

여는 정당이 지역구 5명과 비례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비례의원에게 할당된 47석 중 10%인 5석을 얻어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이처럼 병립형은 비례투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연동형은 이를 연(連), 움직일 동(動)으로 잇따라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다. 비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도 함께 움직인다.

지역구 5석과 비례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비례 10%를 총

의석수인 300석에 적용하여 30석이 된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은 비례 투표표를 많이 받아도 별 소용이 없다.

의석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심하면 비례의원을 한 명도 못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정당에게는 병립형이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연동형이 유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연동제의 단점을 보완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 제도였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비례의원을 얻지 못하게 된 거대 정당들이 의석을 얻기 위해 가짜 소수 정당들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위성정당이다. 이 위성정당 때문에 기존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들이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병립형과 연동형이 논란거리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르헨티나 1월 빈곤율, 20년만에 최악으로 치솟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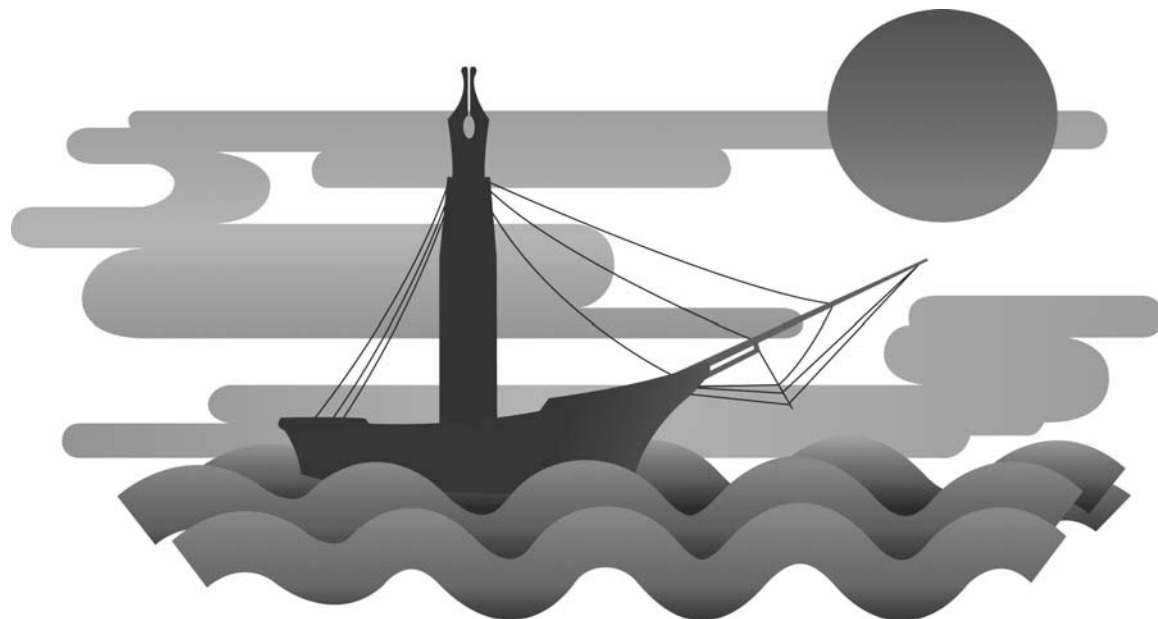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2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 무료급식소 밖에서 주민들이 식사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지난 1월 빈곤율이 57.4%까지 치솟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산동네 물통에 물 채우는 급수차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는 21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의 누에보 파라이스 산동네에서 급수차 운전자가 동네 물통을 채우고 있다. 페루는 12월~2월이 우기와 여름이며 낮 최고기온이 31도에 육박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